

제주문화 헤쌍 보기

지역문화, 삶의 스타일
그리고 제주문화의 원형질 이해하기

박경훈(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

제주의 마을들

알드르 보재기 웃드르 촌놈

구분	해촌(海村, 浦村)	양촌(陽村)	산촌(山村)
	coastal habitats (해안마을)	plains habitats (평원마을)	mountain habitats (산간마을)
생업	어업, 나잠	농업, 목축	목축, 수렵
형태	반농반어	반농반목	반목화전수렵
주민특성	선주도민(포작)	유배, 이주	선주도민(사농바치, 테우리)
관계	양촌과 대립	해촌과 대립	-

(Hall, R. Burnett /우락기의 구분)

제주문화의 환경요인에 의한 가장 큰 특징은 고구마 형상의 섬 전체에 걸쳐 고도에 따라 생활문화의 특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섬의 고도에 따라 바다와 연한 마을들인 해촌(또는 포촌)은 반농반어, 양촌은 반농반목, 산촌은 반목화전수렵으로 생업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그들의 문화나 규범 역시 차이를 보인다.(우락기) 마을의 분포규모로는 해촌과 양촌이 가장 많고 산촌은 아주 규모가 작다.

해촌(海村, 浦村)

제주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 해촌마을은 방사형의 섬을 에둘러 전역에 존재한다. 각 마을과 마을의 바다는 마을이 연접하는 곳을 경계로 공동체적 소유관계가 뚜렷하다. 그에 따라 바다에 대한 입어권도 마을에 속해 있다.

※ 일례로 한 마을의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처자는 부군의 마을바다에서는 물질이 가능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마을의 바다에는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이혼하여 마을로 돌아오면 다시 자기 마을의 바다에 대한 입어권을 회복하게 된다.

- 이는 제주의 여인들이 독자적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여건이 되어 한민족 사상 가장 독립성이 강하고 개체적 발언이 강한 제주여성들의 기질과 풍토를 만들어낸다(이혼률 전국 1위)

이처럼 제주의 바다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또한 바다자원의 남획을 막는 공동체적 어획윤리가 작동하여 자 연친화적 생업을 꾸려 왔다.

양촌(陽村)

제주내지의 평원지대의 마을들인 양촌은 넓은 토지를 소유한 관계로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생업을 삼아왔다. 이 마을들은 양질의 토지가 분포되어 있어, 농업생산력이 해촌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축사육에 있어서도 광활한 내지 평원과 목초지대에 속해 있어 해촌이나 산촌에 비해 훨씬 용이했으므로 타 유형의 마을보다 부유했던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 유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들이기도 하다.

- ※ 제주의 생활문화의 기반인 마을을 3유형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양촌의 경우도 마을마다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촌과 양촌을 통틀어 유교문화가 뿌리내린 마을들은 반촌으로 불리었고, 양촌인 경우는 반촌이 대부분이었는데도 송당마을의 경우는 유교적 전통에서 배제되어 있기도 하여 특이성을 보이기도 한다.(데이비드 네메스)
- ※ 장기간의 유배인들 중 이 섬에서 묻히거나 씨불이를 남겨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의 마을들은 양촌지역에 번성한다. (반촌)

알뜨르 보재기 웃뜨르 촌놈

알뜨르, 즉 해촌의 주민들은 양촌산촌의 주민들이 바다의 생리를 알지 못하기에 웃뜨르 주민들을 촌놈이라 비하했고, 웃뜨르 마을의 사람들은 해촌주민들을 바다일밖에 모르는 무식자라 해서 '보재기'라고 불렀다. 보재기란 포작인(捕作人, 전복 따는 사람)에서 비롯된 방언인데, 이는 해촌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위아래 동네의 대립은 오랫동안 이어진 제주의

전통이기도 하다. 특히 반촌의 분포가 많았던 양촌지대에는 제주에 유배되어 정착한 이들의 집성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문서에는 밝았으나 제주의 자연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였다. 또한 해촌민들은 제주의 환경에 대한 지식은 밝았으나 소위 유교문화의 지식은 전무했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대립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지만, 물자의 교환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이들 마을은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적 구조이기도 했다. 즉, 해촌은 양촌산촌에서, 또는 역으로 서로 생산하는 물자가 달랐기에 상호 물물교환에 의해 의존적인 경제생활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민의 정주관습 : 동서정주관습

제주시 구도심권의 동서촌사람들의 정주관습은 중앙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며, 즉, 동촌사람은 중앙로를 기점으로 동쪽인 일도동과 건입동 권역에, 서촌사람은 중앙로를 기점으로 삼도동과 용담동 권역에 모여 산다. 이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공간관습이기도 하다.

서촌에 비해 동촌의 경우 문화적으로 좀 더 보수적 신촌·조천권이 유림지대였던 데 반해, 조선말 민란의 진양지가 대부분 대정현을 중심으로 한 서촌권에서 일어났다는 점¹⁾에서 서촌의 경우 동촌에 비해 개방성·진취성에 차이가 있다. 종교적으로도 동촌권이 아직까지도 무속문화의 중심지라면, 외래종교인 기독교·천주교의 경우 서촌이 훨씬 발달해 있다. 과거 혼인에 있어서도 동서촌의 문화적 거부감이 존재하여 6,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서촌 간의 혼인은 매우 드물었다.

1) 강제검의 난,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

제주문화의 주역은 역사적으로는 양촌주민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해촌인들

- 배를 부리는 기술, 바다라는 위험한 자연환경에 대해 세대를 건너 축적된 지식이 교역과 어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 제주섬사람들에게 원양(遠洋)은 해양유목의 평원이었으며, 근해는 양식을 얻는 경작지였다.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불린 제주의 해양민들은 바다를 무대로 삼았기에 용맹했고, 누구보다 바다길과 바다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좁은 섬에서 각축하기보다는 대해와 외해를 넘나들면서 해양을 유목했던 해양유목민들이었다.

이주, 한민족의 오랜 전통

제주도민의 85%가 입도조(入島祖)의 후손

제주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아니, 섬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라고 할까?)가 있으니 ‘육지갯’과 ‘입도조(入島祖)’가 그것이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제주에 이주해 온 이주민을 부르는 전래어다. 물론, 이는 제주가 섬이라서 붙은 말이다. ‘육지갯’은 원제주인이 새로 이주해 온 분들에 대한 배타성의 언어이다. 하지만, 제주에 이주해 와 오래 정주하신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육지갯’으로 묶어 놓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제주섬에 ‘육지갯’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오랜 옛날부터 그래왔듯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보듬고, 제주섬의 생태를 사랑하고 뿌리 내려 나갈 ‘입도조’만 있다고 생각한다. ‘입도조’는 결국 새로운 ‘제주인’이며, 제주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입도조’는

당대에 제주섬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더 정확히는 어떤 성씨가문의 본관이 같은 계열의 선조 중 제주에 가장 먼저 입도하여 정착한 선조를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필자는 당대에 입도한 이주민을 부르는 말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이 말은 또한 제주에서만 쓰이는 족보용어이기도 하다. 입도한 지역에 따라 육지부의 용어와 다르게 쓰이는 씨족성의 본관명도 따로 있다.

조천 김씨(김해 김씨), 신촌 흥씨(남양 흥씨), 애월 문씨(남평 문씨), 곽지 박씨(밀양 박씨) 등 족보에 기록된 본토의 본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만 통용되는 입도본관명들이 있다.

이러한 입도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제주섬에 정착해왔는데, 특히 조선왕조 500년간 원악유배지로 제주가 이용되면서 유배객으로 와서 정착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입도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용어는 이주 정착해 제주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감’을 지닌 주민들이 ‘불리는’ 또는 ‘스스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제주의 토성(土姓, 그 지방에서 태동된 성씨)이라 불리는 ‘고(高,) 양(梁,) 부(夫)’ 세 성 씨를 빼고 나면(이도 신화에 근거했을 때의 이야기) 제주도민은 사실 모두가 ‘입도조’의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제주도에 이주민은 따로 없는 셈이다. 오늘 이 섬에 정착한 ‘입도조’냐 500년, 300년 전 먼저 정착한 ‘입도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총 286개
제주도 내에는 224개 성씨가 분포

- 제주도가 조선왕조 500년간 유배지로 각광받았던 역사의 유산이다.

이 중 제주의 토성인구수는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고씨 4만 5천여 명, 양씨 3만 7천여 명, 부씨 7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다 합치면 89,000여 명으로 현재 600,000명을 엇그제 돌파한 인구수 대비 15% 정도 된다.

- 또한 역사의 부침에 따라 이주해 온 성씨들도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6세기 전반까지 제주지역에 살았던 주민이 지닌 성씨 중에는 몽골의 원(元)을 선향으로 삼은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 좌(左) 등과, 명나라가 유배 보냈던 몽골왕족으로서 운남(雲南)을 선향으로 삼은 양(梁), 안(安), 강(姜), 대(對) 등이 있다.

- 탐라국의 후예들이며 이 섬의 연고권자들인 삼성씨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소수자인 셈이다. 그렇게 보면, 제주는 ‘육지갯’들의 섬이 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육지갯’과 ‘섬 갯’의 경계는 이미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육지갯 차별이니 하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는다. 물론 당연히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 허나 그 정도의 선이주민과 후이주민의 차이, 연고권과 피연고자의 차이마저 차별이라고 한다면, 어디 간들 다르겠느냐는 질문을 되돌릴 수밖에.

섬에 산다는 것, 갯내음과 습기 그리고 하늘과 바람을 사랑하라

제주섬은 해안선으로부터 4km 이내 지역은 4면의 제주바다에서 불어오는 염해(鹽害)를 입을 수 있으며, 늘상 비릿한 갯내음을 느끼게 하는 해풍의 영향권이다. 이는 제주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가장 이질적으로 느끼는 기후환경이기도 하다.

제주도내에서 정주관습의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도내주민 중에서도 해촌 출신이나 산촌출신이나에 따라 다름. 오래전에 정착한 입도조의 후손들도 중산간의 산촌에서 난 사람은 해촌이나 해안가에 정주하기 힘들며, 역으로 해촌 출신들은 산촌에 정주하는 것을 갑갑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

‘주의보(注意報)’와 결항(缺航)

주의보는 보통 해상선박운항과 관련지어 통용되는 말이며, 결항은 해상과 항공 모두에 쓰이는 용어.

실제 제주섬 내에서도 본섬에 딸린 작은 섬들, 즉 가파도나 마라도 등에는 화창한 날씨임에도 파고가 높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제주의 산업은 대부분 연륙수단에 의존한다.

감귤과 마늘 감자의 주산지

- 출하시기에 맞춘 해상과 항공노선의 안정은 필요불가결한 요소
- 생필품과 건축자재 등 모든 공산품이 바다를 건너야 함

※ 삼다수 증산을 싸고 한진과의 노선분쟁 등

※ 태풍전야 섬속의 섬 풍경

-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본섬에 별도의 자택을 하나씩은 마련해 놓고 있다. 추자도 주민들은 주로 제주시 건입동 부근에, 마라도 주민들은 대정읍 모슬포항 부근에, 우도는 성산포에

제주에서 집짓기

- 계획된 공기를 맞추기 힘들

※ 제주의 건축업자나 속칭 ‘노가다 십장’들이 막무가내로 소위 ‘지들 맘대로 공사한다’라고 불평할 때가 많음

다우다습의 섬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역이며 또한 습도가 가장 높은 다습지역이기도 하다.

해양성기후의 특징

연평균습도는 70~80%로 서부지역이 77%로 가장 높고, 북서부지역은 73%와 75%이며, 남부지역은 70%로 가장 낮고, 지역 간의 차이는 6% 이내다. 제주섬의 습도는 한반도내륙지방인 서울 등 중부지방보다는 5~10% 정도 더 높다. 하절기 제주도의 습도는 최소한 80% 이상이므로 상당히 습한 기후를 보인다.

일뤼당(七日堂)



온평리 일뤼당인 일명 허물할망당이라 불리는 '용머리 일뤼당'

- 제일(祭日)이 7일자에만 있는 당들이다. 즉, 7일, 17일, 27일에 다니는 신당이기에 때문에 '일뤼', 즉 '이뤼당'
- 특이하게도 이 당에만 올리는 독특한 제물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삶은 달걀'이다.
- 일뤼당신은 '치병신(治病神)'으로 일뤼당신은 피부병을 고쳐주는 신으로 받아들여진다.

※ 바로 제주의 습한 기후 때문에 생겨난 신앙행위인 것이다. 신앙민들은 삶은 달걀처럼 매끈한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당신께 빌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신당들은 대부분의 마을에 본향당과 따로 구성되어 있거나, 본향당 자체인 경우도 있어 섬 전역에 골고루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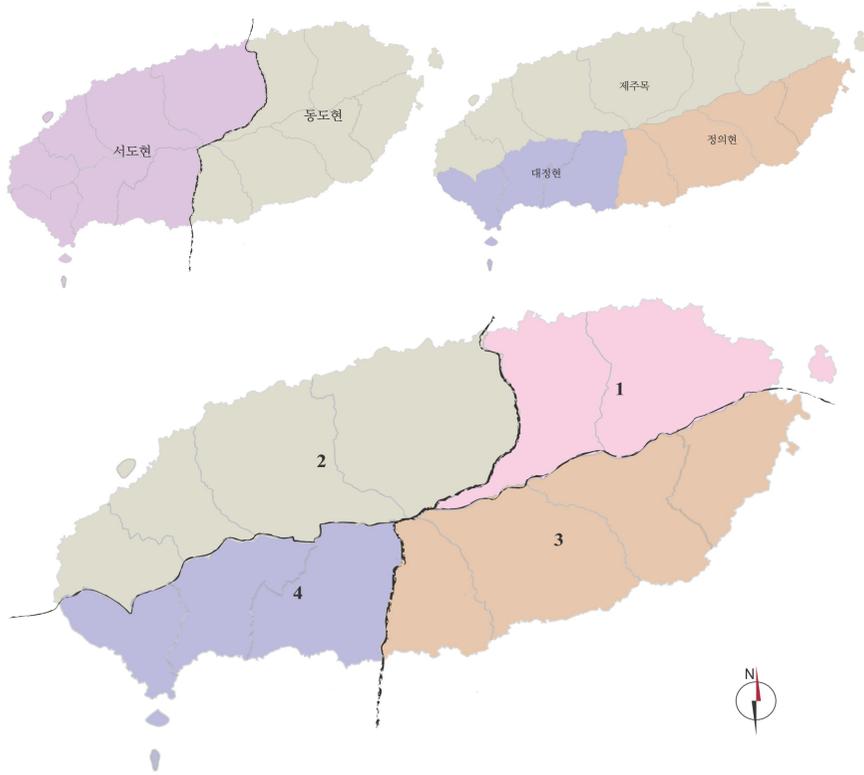
제주도 전역에서 도민들은 습한 기후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사람들이 습한 기후 때문에 얼마나 피부병을 앓았으면, 이렇게 피부병을 고치는 신께 바치는 제물마저 독특하게 발명되었을까 싶은 것이다.

- 제주에 정배(定配) 되었던 유배객들의 서찰과 문헌 속에 습한 기후로 인한 고통을 호소

※ 제주의 유배객 중 당연 최고의 유배객으로 이름 높은 추사체의 대가 완당 김정희는 제주에 9년간 유배생활 하던 중 풍토병으로 늘 고생하여 그 고통을 편지마다 호소하였는데,

“저는 늘상 고루하고 둔한 데다가 갑자기 피풍증(皮風症)을 얻어, 온몸에 비늘처럼 반점이 생겨서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전에 비올 때는 잘 자던 그 잠까지도 이제는 이룰 수가 없으니, 이것이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사촌형인 김교희에게 보낸 편지에서/유홍준, 《완당평전》에서 인용)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문화다양성의 보고(寶庫)



〈제주도 방언지도〉. 위 왼쪽지도는 고려시대 〈동서도현〉의 경계체제. 위 오른쪽은 조선시대의 〈삼읍체제〉의 구분이다. 아래의 제주방언의 지역별 등어선의 구분에 의한 분포를 보면, 현재의 방언이 위 두 체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임을 말해준다. (김순자 박사의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에서 발췌)

국어학자인 ‘김순자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섬의 ‘방언’, 즉 ‘제주어’는 단일하지 않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크게 4개의 권역으로 언어의 분포가 특성을 달리한다.

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행정체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된 결과로,

고려시대 제주는 동서도현(東西道縣)체제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삼읍체제로 500년간을 이어왔다.

즉, 제주의 방언은 바로 이 고려시대 동서도의 구분과 조선시대 삼읍체제를 포개어 놓은 것처럼,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등어선(等語線)이 구획된다. 즉

- ① 제주도 동북방언(조천~구좌/우도)
- ② 제주도 서북방언(제주시~한경/비양도)
- ③ 제주도 동남방언(서귀포~성산)
- ④ 제주도 서남방언(중문~대정/가파도, 마라도)으로 나뉜다.

표준어 '취' 3번 구역인 섬동남방에선 '중이', 그 외지역은 '쨍이'로 불림

표준어 '옥돔' 3번 구역에선 '솔나니' 타지역에선 '생선' '옥돔' '오토미' 등으로 불림

※ 1950m에 이르는 한라산의 높은 고도가 기후의 차이를 만들어내 그 여파로 단축의 남북과 장축의 동서가 각각 다른 풍토를 이루기 때문이다. 제주의 언어 역시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에 두고, 고려시대 동서도현체제와 조선왕조 500여 년간 고착된, 즉 제주 대정 정의의 1목 2현(1牧 2縣) 삼읍(三邑)체제라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문화권의 차별이 생긴 것이다.

실명사회(實名社會)

제주도는 실명사회다.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어 가능한 일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옆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 간의 이격거리가 짧았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도 세 사람만 건너면 어떤 식으로든 인연의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제주사회였음

부정적인 축명의 특징

대표적인 것이 자기표현에 서툰다(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남의 견해에 묻어가는 경우가 많다)

- 43의 역사적 후유증, 좁은 실명사회의 인간관계에서 비롯
- 이러한 풍조는 지역사회의 비판문화의 부재로 나타나 건강한 비판정신이 발붙이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담론 형성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공(公)과 사(私)의 경계가 불분명함

- 좁은 사회의 인간관계는 결국 학연 지연 등의 사적인 관계들이 공적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남
- 권당문화 :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면 '권당정치', '조문(弔問)정치', '부조정치'로까지 발전 - 문지마 선거

긍정적인 측면의 특징

- 전근대시대 공동체적 안전망으로 기능
- 권당주의의 기원: 자원부족, 인구 희박 대자연의 재해에 맞서는 공동체적 대응체제의 하나

권당문화의 긍정적 발전형태: 수눌음문화

권당관계는 '수눌음'이라는 협부(協扶)문화를 만들어 냈는데, 육지부의 품앗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등가형교환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수눌음 문화의 전통은 제주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하는 사회원리였다. 이러한 수눌음 문화는 제주사회 전체의 문화적 특성 중 가장 범위가 넓으며, 가장 주요한 사회운동원리로 기능해 왔던 전통이기도 하다. 제주의 자연마을에서는 아직도 이 수눌음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제주섬의 생활문화

제주섬의 옛이름은 '탐라(耽羅)', 탐라는 섭라, 담라, 탁라 등과 더불어 '섬나라'라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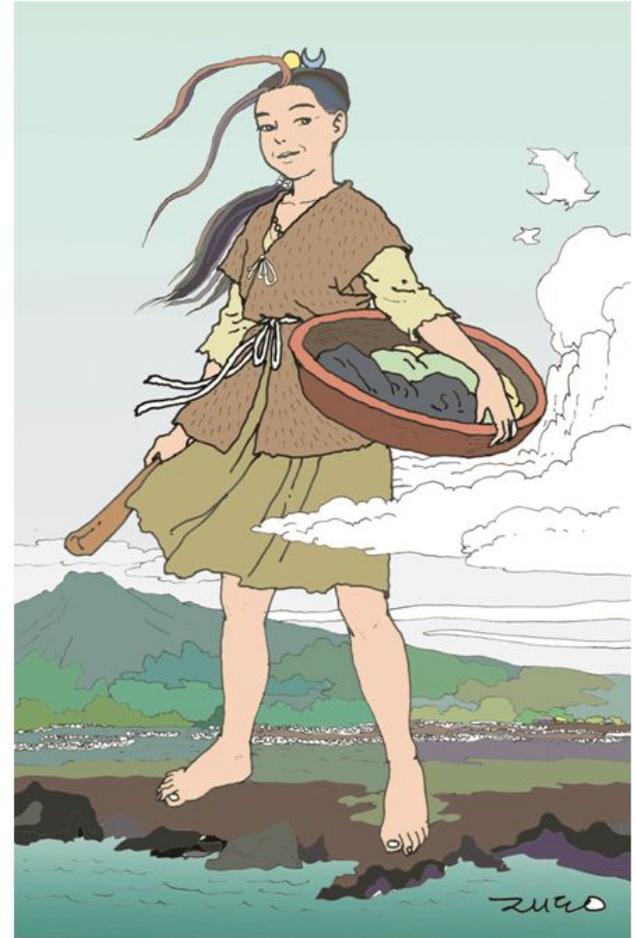
- 이 '섬'이라는 환경이 제주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며, 이를 극복하며 적응하고 정착한 섬주민들의 삶의 지혜가 그 다음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시간이 더해가 더해져 소위 '제주문화'라고 불리는 '문화전통'이 이어져 온 것임
- 제주의 생활문화는 섬의 환경에 가장 영향이 큰 바다 그리고 바람과 기온, 또한 토질 등의 상태에 의해 영향
- 특히 4면이 바다인 제주섬은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의 영향을 받아 고위도에 속하면서도 따뜻한 온대성 기후를 유지해 왔다. 섬의 남부지방은 이러한 특성이 더욱 도드라짐

제주의 생활문화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기층신앙

- 이는 과거 조선조 때부터 당오백절오백이라 하여 무풍이 거센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속의 원형이라 부를 만하게 성행
- 또한 상례, 혼례, 제례에 있어서도 육지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들이 존재
- 물론 이런 전통예법들은 이제는 상고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현재식 예법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 또한 제주특유의 조냥문화, 수눌음문화 등도 육지부에서와는 다른 문화들이다.

살암시몬 살아가기' 위한 오랜 문화전통 제주섬의 '무풍(巫風)'

- 제주섬의 오래된 종교는 무교(巫敎)다. 제주의 전통적인 기층신앙체계는 무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재 400여 개가 넘어서는 신당들이 섬 전역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전근대시기에 제주의 종교는 19세기 유교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이전까지는 모두 무속종교였음



본향당 : 마을의 공동체적 신앙장소(마을제 거행/1년 4제)

- 마을의 근본이 되는 신당

- 대부분 마을 설촌의 역사와 본향당은 역사를 같이 한다.

※ 설촌한다는 것은 곧 그 마을의 수호신인 마을신을 모시는 일, 마을신이 깃들어 있는 성소가 본향당

-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 이제 이러한 풍습도 대부분 쇠락해져, 1년에 정기적인 당제를 치르는 당도 많지 않으며, 또한 그 당제를 제대로 된 선긋으로 하기보다는 심방 1인만 장고를 두드리면서 비념하는 정도의 약식 제의인 '얹은제'를 하는 당도 드물어졌다. 또한 현재 제주도의 어떤 당들도 4당제를 제대로 치루는 당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 이 섬의 척박한 환경과 변방의 고통스런 역사에 휘둘린 제주민중의 한이 서린 말

※ 삶의 고비마다 힘들고 고난에 찼 때마다 제주의 여인들은 너나 없이 마을의 신당과 작은 당들에 가서 신들에게 정성을 올리고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또한 해녀들은 물에 들기 전 갯당에 가서 물질을 할 때 안전하게 해줄 것을 빌었고, 선주들이나 어부들은 돈짓당에 가서 용왕신께 선박의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문전제와 조왕제가 별상(別床)되어 있는 제주의 제사 '씻게'



씻게(제사):4대봉사 원칙

(조선 후기의 상황, 100년의 짧은 역사)

제주 특유의 제사법으로 문전제상이 있다.

집에서 제사나 명절의 제의를 지낼 때에

- 문전제(門前祭)라 하여 문신(門神)에게 약식 제사를 지내고, 부역의 신인 조왕에게 고사를 지내는 점,
- 명절 때의 제의가 차례가 아니라 제사 때의 제의와 꼭 같이 지내는 점,
- 축문(祝文)이 없는 점,
- 주부가 아헌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남자 자손만이 제관이 된다는 점 등이다.

친족 집단은 제사 집단이라 해도 좋을 만큼, 그 임무에 제사명절을 공동으로 지낸다는 특징이 있다. 친족의 최소 집단은 고조 부모를 정점으로 한 자손의 집단으로서 흔히 '당내(堂內)'라고 불려왔다. '당내(堂內)'란 '집안'이라는 한자어인데, 제주에서는 '방상' 또는 '방답'이라고 한다. '방상'은 고조부모의 자손들의 집단이니만큼 고조부모 이하의 자손들이 제사명절을 같이 지낸다.

- 제자음식의 으뜸은 어류에서는 옥돔
- 산적은 빻게고기(상어고기)
- 채소 중에서는 고사리를 으뜸으로 칩

문전상과 몸상

- 제일의 본상을 '몸상'이라 부르고, 작은 약식제상은 '문전상'이라 부름
- 제가 시작되면 맨 처음 출입문을 앞에 두고 문전제를 먼저 지냄(단헌단작)
- 문전제의 음식은 거두어 다시 작은 제기(豆)에 넣어 부엌의 조왕신께 올린다. (부엌의 솔 뒤)

문전신과 조왕신은 무속의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신들임 조상송배가 유교식으로 바뀌어도 가신에 대한 풍습은 이어짐

문전[門禱]의 할아버지는 해만국, 할머니는 달만국, 아버지는 남선비, 어머니는 여산부인이며, 一門前은 똑똑하고 영리한 녹디생이다. 남선비와 여산부인은 일곱 아들을 두어서 먹고살기 위하여 무곡(糶穀, 시세차익을 이용한 곡식장사)장사를 하려고 남선비는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갔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있는데 간악해서 남선비의 돈을 굶어낼 계책을 세웠다. 작은부인의 악행으로 본부인은 죽고, 아들들의 목숨도 위태로웠다. 막내아들 녹디생이의 지혜로 모두 응징한다. 그 결과, 남선비는 겁결에 올라로 내달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어서 주목지신(柱木之神, 정낭을 걸치게 올라 양쪽에 세워 놓은 기둥)·정낭신, 정살지신(정낭의 신으로 정낭을 정살이라 함)이 되었다. 계모는 벽을 뜯고 그 구멍으로 변소로 도망쳐서 쉼뎛자 머리로 목매어 죽으니 변소신인[廁道婦人]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의 흙을 모아서 시루를 만들었다.

여섯 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먹으로 찍으니 여섯 구멍이 터지고 녹디생이는 화를 발각 내며 발뒤꿈치로 한번 찍으니 가운데 큰 구멍이 생겼다. 그때 낸 법으로 시루구멍이 일곱 개다.

그 때 이후로 오늘날도 명절·기일제사 때에 문전제를 지내고, 그 제사의 제물을 조금씩 떼서 지붕 위에 뿌리고, 그 제물을 조금씩 떼서 어머니이신 조왕에게 올린다. 또한 조왕과 측도부인은 처첩 관계여서 부엌과 변소는 멀수록 좋으며,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막대기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않다는 말이 생겼다.

협부문화 수놓음



수눌음이란 무엇인가,

분명 '수눌다'의 명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눌다가 무엇이라 딱히 언어학적으로 정리된 게 없다. 수눌다의 어원을 찾아보니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 없었다. 제주어를 전공한 학자도 수눌다의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고, 의미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유추해보면 '손을 썬다. 즉 손노동을 보태다'는 뜻이 아닐까? 작은 손들이 모여 늘을 썬듯이 썬아 올리면, 큰 덩어리가 되듯 사람들의 노동력을 보태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쯤 되지 않을까? (제주어를 전공한 후배학자는 수를 늘어놓는 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데, 너무 상상력으로 나가지는 말 것을 주문했다.)

사전에서 수눌음을 찾아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전승되는 제주 특유의 노동 관행. 제주도 특유의 미풍양속으로 육지의 품앗이와 같다. 수눌음은 생산 공동체에서 행하는 관습으로 단순한 협업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에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돕는다. 열 사람이 각자 자기 밭에서 열흘 동안 매야 할 일을 한데 모여서 매면 닳새 만에도 모든 밭을 맬 수 있다. 홀로된 과부라 할지라도 옆집의 남성이 밭을 갈아주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그 남정네의 밭에 김을 매주는 형식으로 수눌음이 행해졌다. 수눌음을 통하여 여성 혼자서도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섬의 환경이 준 삶의 지혜

토심이 1미터도 되지 않는 화산회토에서 농사를 한다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또한 인구수가 희박했던 제주도에 토질 좋은 육지부에 비해 몇 갑절 노동을 감내해야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전작(田作)농업은 노동력의 밀도를 높여, 한 가족이 감당할 경계를 넘어선다. 결국 이러한 노동의 조건은 상호부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마을 단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눌음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수눌음의 현대적 의미

수눌음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연대와 협동, 돌봄과 배려의 공동체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도 복지가 화두다. 그 말은 그만큼 복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복지정책의 최전선에 '사회안전망'이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사회가 사회구성원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일 터인데, 이 사회안전망이 구멍이 뚫리거나, 아예 자본주의로 전화된 이후,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 자살률 1위는 바로 이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
- 승자독식의 악마식 자본주의 비인간적인 게임의 법칙
-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사회

전근대시대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 ‘인정’ 사회안전망의 다른 이름

전근대의 시기, 가난과 전쟁, 수탈과 저항의 시대에도 우리 사회는 튼튼한 그물망을 갖추고 있었음

- 우리가 전근대의 시대를 마치 우리시대에 비추어 반추할 때, 모든 것이 덜 떨어진 사회로 규정하는 몹쓸 버릇과 무지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왠지 모르게 유년시절의 고향을 떠 올리거나, 새마을 운동 이전의 시대를 떠올릴 때, 왠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들은 실은 작금의 우리사회가 갖추지 않았던 안전그물의 존재였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 오래된 옛 사진의 정경과 기억 속의 마을과 사람들을 떠올릴 때 따스해지는 느낌은 단순한 노스탤지어에서 오는 당연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 팍팍한 물질적 가난에도 불구하고, 상호부조하는 사회시스템의 존재는 인간관계 사이에 마치 베어링에 기름을 칠듯 유연하면서도 인간애가 묻어나는 관습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사회에서 그 관습의 이름은 ‘수눔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시스템이었던, 수눔음 문화는 언제부터인가? 흔들리기 시작

- 사회학자 김창민은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수눔음의 약화배경을 찾았다.
- ‘현금수입을 위한 환금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감귤농업이다. 감귤재배가 시작되면서 토지 이용방법이 바뀌게 되고, 노동의 형태 역시 바뀌게 된다. 생계경제하에서는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가족노동력과 수눔음으로 특징 지워진다면, 환금작물경제하에서는 가족노동력과 임노동으로 특징지어진다.
- 생계경제에 비해 수눔음의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하고 대신 임노동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즉, 생계중심의 마을노동이 소위 돈 되는 작물(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유통경로를 따르는) 중심의 농경으로 바뀌면서 수눔음 문화는 급격히 약화

되었다는 것이다.

- 이 시기는 바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즉 한국사회 전반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한 순간부터 제주 사회의 안전망이자 사회경영의 중요한 시스템이었던 수놓음 문화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욕망의 무한증식과 상품의 대량생산과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상징되는 한국사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소위 착한 자본주의의 작은 진지들이 필요하며, 이 진지들의 연계망 속에서 공동생산 공동경작 공동이윤의 분배라는 마을 공공영역의 경제분야를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추구의 길이 아닌, 다른 방식의 농사나 마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수놓음문화는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견해 본다.

“아이고 재미어신 여왕 들노랜 폭삭 속았수다”



삼도 2동 문화의 거리에서 펼치는
2014 제주프린지 페스티벌
Jeju fringe festival



원도심이 덩쌈덩쌈
 쟁이들을 위한 페스티벌
 몸담하는 예술축제

2014.10.3~11
프린지 거리
 (관덕로 6길)



jjpaf.blog.me

facebook.com/jejufringe



2014제주프린지페스티벌조직위원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The Jeju People's Artists Federation